

韓昇, “남북조와 백제의 정치·문화 관계의 변화”

### 중국의 조선 3국에 대한 전통적 인식 고정화

- 고구려를 제일 중시(南史, 東夷之國 朝鮮爲大; 魏書, 高麗 東藩之冠)
- 엄격한 순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 기재
- 백제, 신라의 국가형성이 늦고 중국과의 교류도 비교적 늦은 편이라 宋書에 이르러서야 백제열전이 나오고 신라는 梁書에서야 출현
- 지리적인 이유도 존재

중국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도 현실에 따라 변화하고 특히 남북조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

- 동아시아 각국과 두루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남조, 남조와 백제의 정치, 문화적 관계에 주목

조선 3국중 중국과 가장 빈번히 왕래한 것은 고구려, 5호16국부터 수 나라까지 160여 차례 왕래

중국 정사에서 백제 기사가 처음 나오는 것은 晉書 372년이고 삼국사기 기록도 일치하나 이는 의심의 여지

- 백제가 낙랑군, 대방군을 공격한 사례는 중국 중앙정부도 인지함이 당연(246, 286, 304)
- 일본 나라현 천리시 石上神宮에서 발견된 七支刀, 보수적으로 보아도 동진 태화4년=369년 이전에 중국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밀접한 연관

고구려의 중국과의 교류가 백제, 신라보다 훨씬 많으며 남조와의 관계만 보더라도 47회로서 백제의 33회보다 우위

- 고구려는 북조와의 이익 조정, 남북조 분열 활용, 세력균형 등 국제 정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백제는 외교에서 선택 여지와 활동 공간이 넓고, 교류의 영역도 광활  
고구려는 북조(113:47), 백제는 남조(5:33)에 치중된 외교
- 고구려 장수왕 시기 남북조와 왕래가 빈번한 것은 북연 풍홍 문제,

북위와의 종실녀 혼인 관계로 긴장이 고조되어 절충이 긴요했기 때문

- 백제는 비교적 단순하며 남조와의 외교에 치중한 것은 고구려와의 경쟁 이외에도 남조와의 문화 교류를 중시했기 때문

表一 朝鮮三國與南朝的交往

	東 晉	宋	南 齊	梁	陳	合 計
高句麗	3	22	5	11	6	47
百 濟	6	12	4	7	4	33
新 羅				1	8	9

表二 朝鮮三國與北朝的交往

	五胡國家	北 魏	東 魏	北 齊	北 周	合 計
高句麗	12	79	15	6	1	113
百 濟		1		2	2	5
新 羅	2	2		2		6

(以上二表均未統計中國前往朝鮮三國使節的情況)

\* 由於中國史籍在對外交往的記載方面遺漏不少，所以上述統計只能視作最低的數據。

백제와 신라는 북제 이전 북조의 책봉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일본도 북조와의 왕래가 부재, 남조의 책봉을 중심으로 당시 정황 파악 가능

고구려: 征東將軍(동진, 413)→征東大將軍(송, 420)→車騎大將軍(송,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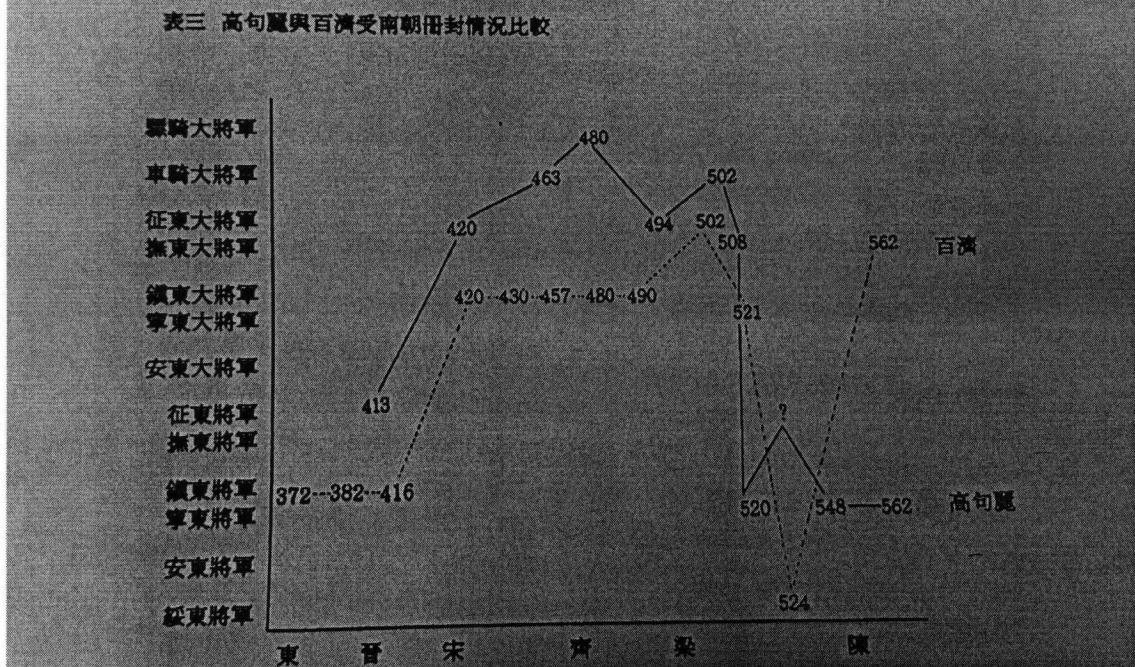
백제: 鎮東將軍(동진, 372)→ 鎮東大將軍(송, 420, 430, 457))

왜(일본): 安東將軍(송, 438) → 安東大將軍(송, 478)

고구려를 동아시아 국가중 수위로 보는 것에 남북조가 일치

- 책봉의 배경에는 실질적 의의의 동맹관계가 존재(439년 송문제의 북벌 계획시 말 800필 제공 등)
- 백제는 제도, 문화 방면에 치중하여 송의 정삭, 역법, 의학, 음양오행법, 승려, 탑 등 추종
- 남조는 백제를 통제하려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

表三 高句麗與百濟受南朝冊封情況比較



고구려의 책봉호는 413-480년 상승기(송대), 480-548년 급락기(남제-양), 548-562년 고정기, 남제를 전후하여 분기점

백제의 지위는 양대 초기 고구려와 지위는 비슷하다가 520년 양자가 역전되는 일대전변 발생(양무제, 백제무녕왕 시대)

백제 개로왕의 고구려 정벌 요청(472), 북위의 거절이후 고구려의 백제 공격(475), 백제의 북위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배경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북위 백제 공격, 패퇴 기사(488)의 해석 문제

- 삼국사기, 남제서, 건강실록 등을 근거로 484, 488, 490년설이 있으나 488, 489년 고구려가 이례적으로 3차례 조공한 정황상 488년설 유력
- 남제서는 전쟁 규모가 수만이라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남제로 가는 백제의 사신선을 추격하여 백제 영내까지 도달한 것이 아닌가 추청
- 백제의 북위 외교 실패후 우발적 충돌로서 북위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으나 백제가 전략상 이를 과장한 것으로 분석

남조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강남에 마음을 두게 되면서 고구려의 현실전략적 의의가 저하

- 남조는 문화 등 대내 문제에 주력, 양무제 시기에 문화의 정점에 도달, 이 시기에 고구려, 백제의 지위가 역전

남경 박물관의 職貢圖, 12폭 외국사절도

- 해석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백제가 동아시아 국가 중에 으뜸이라는 점에서는 일치, 백제-왜-고구려-신라 순서
- 백제 사절의 복식도 남조와 극히 유사

백제 무녕왕 시기(501-523) 남조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도에서 수위

- 무녕왕릉의 유물이 남조와의 친밀한 관계를 반증, 남조는 백제를 문화발달 국가로 간주, 백제 자신의 문화도 높은 수준
  - 무녕왕릉은 남조의 묘지 형식, 공장도 양대 사람들로 추정
- 

何芳川, 華夷秩序論, 북경대

- “華夷秩序論,”『北京大學學報』1998年 第6期.

黃枝連, 天朝禮制體系論, 香港

- 『天朝禮治體系研究』上, 中, 下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高明士, 中國的 天下秩序論, 대만

- 『天下秩序與文化圈的探索：以東北古代的政治和教育為中心』上海古籍出版社, 2008.

임기환, “남북조기 한중 책봉조공 관계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남북조시대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책봉조공이 실질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주변국가가 중국의 제왕조와 맺는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불과

고국원왕이 355년 5호16국 선비족 왕조인 전연으로부터 征東大將軍·榮州刺史·樂浪公·高句麗王 관작을 받은 것이 시초

중원의 국가로부터 책봉을 받은 것은 413년 동진에 조공하고 정동장군을 제수받으면서부터, 동진에 이어 송이 420년 정동대장군에 책봉

고구려가 북위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것은 425년이고 427년 평양천도 이후 435년에도 사신을 파견, 북위는 장수왕을 정동장군으로 책봉

고구려는 북연 馮弘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조와 갈등

- 436년 고구려는 북연 풍홍과 주민들을 구원하고 회군하여 북위와 긴장고조
- 438년 풍홍이 송에 망명하기 위해 송군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송과 고구려 사이에 군사적 충돌 발생
- 이후 439년 송에 말 800필을 보내는 등 남조와의 관계에 주력

고구려는 462년 북위와의 교섭을 재개

- 고구려와 북위의 교섭의 빈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것이 특징, 465년부터 523년까지 총 57회 조공
- 송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463년 장수왕을 차기대장군에 진호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면 남북조 시대에 책봉조공 체제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기본 체제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

- 고구려와 북위의 안정적 책봉조공 관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잦은 갈등은 인식의 차이를 반영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문제

- 광개토왕릉비는 백제, 신라, 동부여를 屬民, 奴客으로 간주, 단 아직 중국 왕조와 본격적 책봉조공 관계는 부재
-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왕과 신라왕의 관계를 兄弟上下로 규정, 남북조 왕

조와의 조공관계도 고구려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

고구려가 받은 책봉호가 최고위인 예가 많았던 점이나, 북위가 여러나라 조공을 받았으나 고구려 외에는 책봉이 없었다는 점도 오히려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권 인정의 의미로 해석

백제의 남조와의 책봉조공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의 신료에 대한 관작 제수를 요청했다는 점이며 4번의 사례

- 백제는 책봉을 국내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한 인상

남북조 시대는 중원 왕조가 분열됨으로써 피책봉국이자 조공국의 주체적 입장이 책봉조공 관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 수가 들어서면서부터 변화

최일례, “장수왕대 고구려의 대중외교와 그 동인,”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장수왕 전기(즉위-27년)는 남북조와 고르게 외교, 중기(28-49)는 북위와 외교를 단절한 채 송과만 외교, 후기(50-79년)은 북위와 중점적으로 외교

장수왕의 대중외교 경향이 고구려내 귀족세력들의 동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해석

- 송 중심 외교는 북연 망명세력을 영입한 국내성 기존 세력, 북위 외교 복원은 송 중심 외교에서 밀려난 낙랑제군 세력들이 주로 후원한 것으로 분석

삼국사기에는 송과의 기록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도적 삭제라면 장수왕 60년 대대적인 귀족 숙청과 연관 가능성

- 개로왕의 국서에 드러난 대신, 강족들의 숙청과 직접 연관된 문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협력에서 대립으로 변하는 시기와 연동하여 고구려의 대중외교 방향도 송 중심에서 북위 중심으로 변화

- 462년 북위와 외교 재개, 472년 개로왕의 국서 사건
- 이후 고구려는 북위에 보내는 공물의 양을 이전보다 배증하고 북위도 호의적으로 응대

김철민, “고구려 장수왕대 대송외교와 그 영향,” 『한국사학보』 63, 2016.

고구려는 413년 343년 이후 70년만에 남조로 사절 파견, 420, 423, 424년 대 송외교로 이어짐

한동안 단절되었던 대송외교가 436년 재개된 것은 북위와의 갈등에서 파생 된 것으로 해석

송 문제의 군마 800필 지원은 439년이 아니라 449년의 오기인 것으로 분석

462년 고구려와 북위와의 관계가 개선되자 송은 463년 장수왕의 장군호를 진호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으나 460년대 후반 송이 산동반도를 상실하는 등 약세화가 두드러져 대송외교의 가치가 하락